

할아버지의 정원

원작자 | 매튜 칼릴, 샘 반 리트

글 | 김은파

원작 글 | 매튜 칼릴 (Matthew Kalil)

원작 그림 | 샘 반 리트 (Sam van Riet)

글 | 김은파

편집 | 김은파, 이수인

편집 디자인 | 이해명

목소리 | 황창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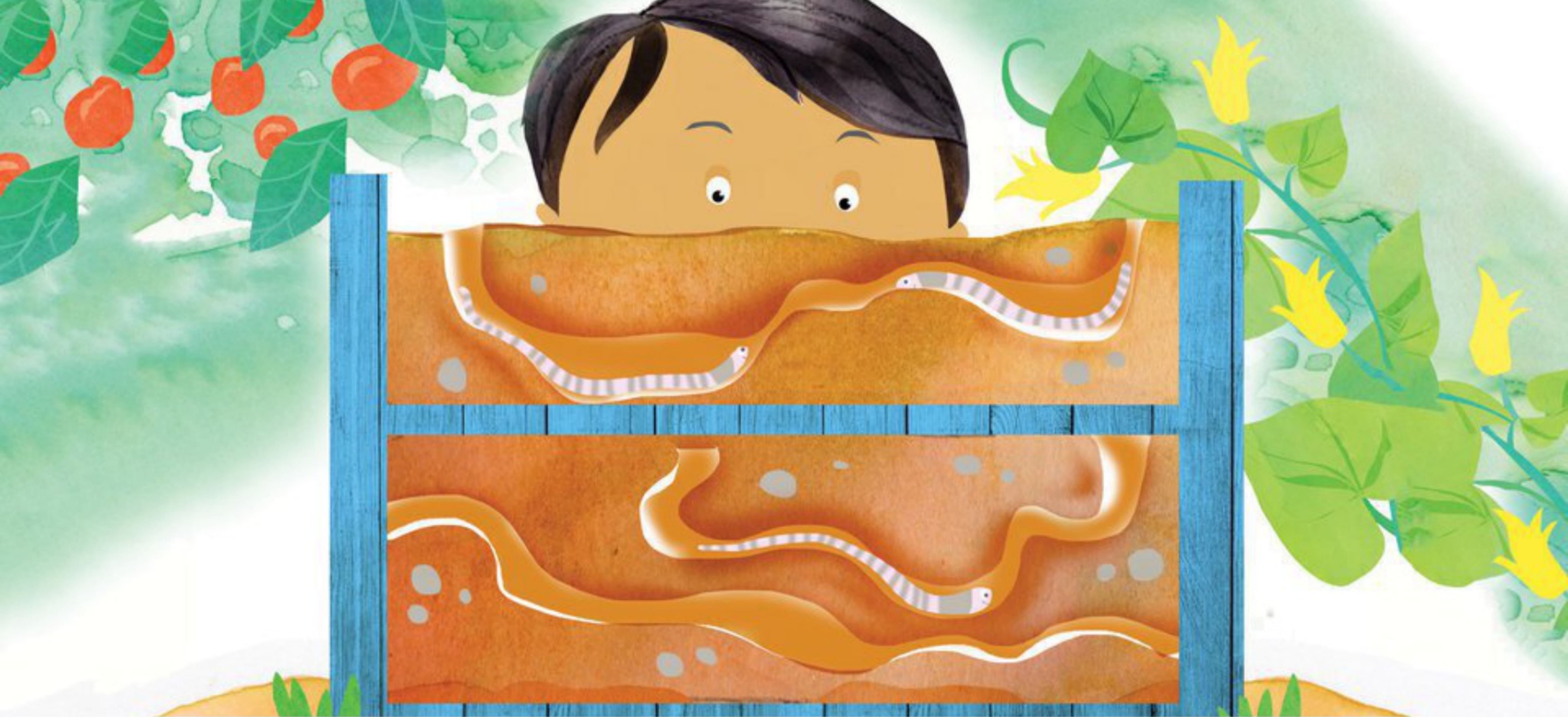




할아버지의 정원은 도시 한가운데 있어요. 높은
건물들로 둘러싸여 있지요.



아미르는 매주 할아버지 댁에 가요. 할아버지는 꽃과 나무를 아주 좋아해요.



아미르는 할아버지를 도와 식물에 물을 주고 거름도 만들어요. 하루 종일 할아버지와 함께 일해요.



아미르와 할아버지는 일을
다 하고 나서 정원의
나무에서 과일을 따 먹곤
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는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할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아미르가 물었어요.

“정원이 죽어가고 있단다.”
하고 할아버지가
대답했어요.
“왜요?”
아미르가 물었어요.





“해충이 식물을 해치고
있어. 무당벌레가 있으면
좋을 텐데.” 하고 할아버지는
말했어요.

“무당벌레는 해충을 먹어
치우거든. 무당벌레가
없으면 정원의 꽃과 나무는
죽고 말 거야.”



“할아버지, 제가 꼭
무당벌레를 찾아 올게요.”
하고 아미르가 말했어요.



다음 일주일 내내,
아미르는 여기저기서
무당벌레를 찾아서
모았어요.



무당벌레 한 마리는 운동장에서 찾았고, 두 마리는
가게에서 찾았어요.



세 마리는 공원에서 찾았고, 네 마리는 텔레비전 뒤에서 찾았지요.



다음 주에 아미르는
무당벌레 열 마리가 들어
있는 병을 할아버지에게
내밀었어요.

“정말 잘했다, 아미르야.
정말 잘했어.”

할아버지는 눈물이
글썽글썽한 채로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아주 기뻐어요. 무당벌레는 아주 배가
고팠고요!



무당벌레가 해충을 먹어 치우자 정원은 다시
살아났어요.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의 정원은 쑥쑥 자라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정원” is a derivative of “Grandpa Farouk's Garden” by Matthew Kalil and Sam van Riet, used under CC BY 4.0.
“할아버지의 정원” is licensed under CC BY 4.0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 2019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